

새차 평균 가격 사상 첫 5만불 돌파 고급차, 전기차 비중 확대가 원인, 1달새 3.5% 상승

신차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차량 정보업체 Kelley Blue Book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9월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5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세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매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5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 고급차·전기차가 가격 상승 견인
KBB는 이번 기록적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고급차와 전기차(EV) 판매 비중 확대를 꼽았다.

9월 한 달 동안 전기차는 전체 신차 판매의 11.6%를 차지해 사상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전기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5만 8,124달러로, 전월 대비 3.5%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43만 7,487

대로 집계되며 시장 점유율 10.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9월 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앞두고 소비자들이 서둘러 구매에 나선 것이 판매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 테슬라 평균이 5만4,138달러
KBB 자료에 따르면, 9월 테슬라의 평균 거래가격은 5만4,138달러로 8월보다 소폭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8% 하락했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더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향후 전기차 평균 가격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KBB는 내다봤다.

폭스우토모티브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린 키팅은 "현재 시장은 가격 조정과 구조적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전기차 시장은 빠른 속도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만 달러대 차량 사실상 멸종
키팅은 "신차 시장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이라며 "이제 2만 달러대 신차는 거의 사라졌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정이 제조업체의 비용 구조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9월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관세보다는 고급차와 전기차 비중 증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KBB에 따르면, 9월 신차 구매 시 평균 인센티브는 거래가격의 15.3%, 즉 약 8,900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전월보다 다소 낮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보다는 높다.

전기차 가격은 전년 대비 0.4% 하락하며 사실상 보험세를 유지했지만, 전체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와 전기차 중심의 가격 구조가 굳어지면서 신차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

전기차 유지비 싸도 감가상각 크다 기술 변화·보조금 영향, 5년 내 평균보다 13% 더 하락

전기차(EV)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지만, 가치 하락 속도는 그만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시카스'에 따르면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5년 동안 평균 13% 더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며, 일부 모델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격이 하락한다.

이는 향후 중고차로 되팔 때 손실을 우려하는 소비자에게 주저함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의 대중화,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 소비자층으로 시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가의 럭셔리 중심 모델이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이시카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칼 브라우어는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특히 부유층 소비자들은 가격에 둔감하기 때

문에 감가상각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고차 구매자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가성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의 감가상각이 더 큰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전기차는 과거부터 각종 보조금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어왔다. 신차 구매 시 가격을 낮춰주는 보조금이 많았던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는 같은 모델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브라우어는 "보조금은 모든 차종의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전기차는 특히 연방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폭스우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월의 역대 최



▲ 전기차의 가치 하락 속도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고치에서 다소 낮아진 수준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 변화의 속도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중앙값 기준으로는 세 배가량 증가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일수록 감가상각이 더 완만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작은 틈새 제품이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의 올해 1~9월 시장 점유율은 10.5%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 시장의 소수에 그친다.

이 같은 시장 구조는 전기차의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도 한계를 만든다. 브라우어는 "전기차의 잠재적 수요층이 아직 많기 때문에, 재판매 시장에서는 수요가 부족해 가격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전기차 중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J.D.파워의 가치평가부문 전무알렉스 유르첸코는 "골 포드와 쉐보레 등 완성차 업체에서 3만~3만5000달러대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전기차 시장이 점차 '합리적인 가격대'의 모델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